

세상을 바라보는 창, DMZ국제다큐영화제

DMZ Docs
Academy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대한민국의 DMZ. 1953년 휴전회담 타결 이후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 각각 2Km 지점까지 폭 4km, 길이 248km의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분단 이후 통일의 꿈은 이루지 못한 채 어느새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이 땅은 큰 아픔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숨겨져 온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생태계의 보고입니다.

DMZ국제다큐영화제는 폭력과 비극이 시작된 이 곳이 평화와 소통, 그리고 생명의 메시지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길 꿈꿉니다. 세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선을 반영하는 창, 다큐멘터리 영화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깨달음과 꾸미지 않았기에 진정한 감동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DMZ국제다큐영화제가 관객여분과 나누고 싶은 가치이며 영화제의 나아가야 할 지표입니다. 다큐멘터리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창을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군위안부 여성의 시각 으로 읽는 다큐

DMZ국제다큐영화제
9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2017. 9. 21. - 28.

주소 (10450)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고양종합터미널 4층 대표번호 1899-8318

홈페이지 www.dmzdocs.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dmzdocs

2017.8.2. ~ 2017.8.30.

매주 수요일 19:00 ~ 22:00

탈영역 우정국

주최 DMZ국제다큐영화제,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협력 탈영역 우정국

여성주의 시각으로 읽는 군 '위안부' 다큐

지난해 DMZ국제다큐영화제 특별기획 섹션에서 소개되었던 군 '위안부' 다큐멘터를 상영하고 여성주의 시각으로 군 '위안부' 이슈를 해석, 토론하는 강연을 진행합니다.

기간 | 2017.8.2. ~ 8.30., 매주 수요일 19:00~22:00

장소 | 탈영역 우정국 (서울 마포구 독막로20길 42)

대상 | 군 '위안부' 및 여성주의 이슈에 관심 있는 일반인, 연구자, 대학생 등

정원 | 30명 (선착순 접수)

수강료 | 회차당 1만원, 전체 강좌 수강시 4만원

신청 | 탈영역 우정국 홈페이지 (<http://ujeongguk.com>)

주최 | DMZ국제다큐영화제,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협력 | 탈영역 우정국

회차	일정	상영작	감독	강연자
1	8/2(수)	침묵 The Silence	박수남 Park Soo-nam	권김현영 성공회대 강사
2	8/9(수)	가라유키상 Karayuki-San, the Making of a Prostitute	이마무라 쇼헤이 Imamura Shôhei	김주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위원
3	8/16(수)	22 Twenty Two	귀커 Guo Ke	권은선 중부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4	8/23(수)	오키나와의 할머니 Okinawa no Harumoni	야마타니 테츠오 Yamatani Tetsuo	김신현경 베를린자유대학교 박사후연구원
5	8/30(수)	기억과 함께 산다 (Part 2) Living with the "Memories"	도이 토시쿠니 Doi Toshikuni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기억과 함께 산다>는 1부(124분)와 2부(91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강연에서는 2부만 상영합니다.



박수남 Park Soo-nam,
Japan/Korea | 2016 | 100min



이마무라 쇼헤이 Imamura
Shôhei, Japan | 1973 | 75min



귀커 Guo Ke, Korea/China |
2015 | 112min



야마타니 테츠오 Yamatani
Tetsuo, Japan | 1979 | 86min



도이 토시쿠니 Doi Toshikuni,
Japan | 2015 | 215min
(1부 124min, 2부 91min)

침묵 The Silence

1994년 5월 일본에 찾아온 15명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었다. 그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으나 중심에 언제나 장구를 치며 앉장 섰던 이옥선 씨는 지금 속리산에 살고 있다. 반세기의 한을 증언한 이옥선 씨들을 밀착해 기록한 소중한 영상들이 살아 있는 피해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가라유키상 Karayuki-San, the Making of a Prostitute

메이지 시대부터 다이쇼 시대까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로 파견된 일본인 창부 집단을 가리키는 말 '가라유키상'. 다이쇼 시대 초에 '여헌'(에도 시대의 투쟁이)에게 속아 싱가포르에 홀로 끌려온 '가라유키상'의 이야기를, 선도자 키쿠오 씨와 함께 그녀의 발자국을 더듬으며 들어보는 작품.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은 일본으로 돌아와 그녀의 고향을 찾아보고 그로 인해 고뇌가 가득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사정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22 Twenty Two

중국에 사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삶에 대한 기록이자, 기억의 기록.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 갔던 희생자 20만명 중, 현재 생존자는 단 22명뿐이다. 조선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 중국 내 소수민족 출신 할머니,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일본군에게 끌려간 할머니의 삶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과 중국, 일본, 아시아의 여러 다른 지역을 가로 지르며 연결된다.

오키나와의 할머니 Okinawa no Harumoni

테츠오 야마타니 감독은 1977년 7월 한국 위안부를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일본에서 수학한 최창규라는 건축가를 만나게 된다. 일본제국의 엔지니어로 중국에 파견되었던 그는 위안부였던 한국 소녀들의 심각한 환경을 직접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다. 야마타니는 예전에 위안부였으며 현재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한 한국 여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다. 그는 오키나와 남부 사탕수수밭의 작은 오두막 집을 방문하는데...

기억과 함께 산다 Living with the "Memories"

'나눔의 집'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 위안부였던 한국 할머니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설이다. 감독이 '나눔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1994년 여름이었다. 할머니들과 만나 이야기들을 들은 후, 그는 일본 저널리스트로서 할머니들에 대해 더 알 필요를 느꼈다. 4개월이 지난 후, 그는 할머니들의 목소리와 삶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나눔의 집'을 다시 찾는다.